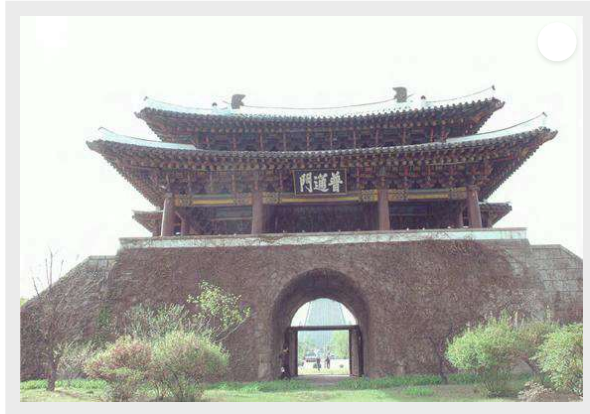


고구려의 천도

고구려, 나라의 중심을 옮기다

427년(장수왕 15)



평양 보통문(6세기 중엽 초축, 1473년 개축)

/ 문화재청 /

1 개요

고구려가 행한 도읍 이전을 말한다. 고구려의 건국지인 지금의 중국 요녕성(遼寧省) 환인(桓仁) 지역에서 길림성(吉林省) 집안(集安) 지역으로의 이동이 첫 번째 천도이고, 집안지역에서 평양 지역으로의 이동이 두 번째 천도이다.

2 졸본(卒本), 고구려의 첫 번째 수도

문헌에 따르면 고구려 건국 지역은 졸본천(卒本川) 비류수(沸流水) 가라고 한다. 관련사료 이곳은 중국 요녕성 환인 지역으로 혼강(渾江)의 중·하류에 해당하는데, 혼강의 지류 중 하나인 부이강(富爾江)의 옛 이름이 비류수이다.

환인 지역에서 고구려 도성으로 기능하였던 곳으로는 하고성자촌(下古城子村)에 있는 성터와 오녀산성(五女山城)이 지목된다. 하고성자성은 혼강 서쪽 평지에 있으며 흙으로 쌓은 방형의 토성이다. 오녀산성은 하고성자촌의 동쪽에 위치한 높이 820m의 산 위에 둘로 쌓은 성으로, 북쪽·서쪽·남쪽에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형성되어 있는 천혜의 요새이다.

일반적으로 고구려의 도성은 평상시에 거주하는 평시성과 비상시에 들어가 사용하는 방어용 산성이 하나의 세트를 이루는 구조였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이들이 하고성자성과 오녀산성을 각각 고구려 도성제에서 평시성과 방어용 성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광개토왕릉비에 따르면 고구려 시조 추모는 비류곡(沸流谷) 졸본(忽本) 서쪽 산 위에 성을 쌓아 도읍을 세웠다고 한다. 관련사료 '서쪽 산 위에 쌓은 성'은 곧 오녀산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졸본'과 '忽본'은 통하는 말이므로 결국 졸본은 오녀산성보다 동쪽에 위치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때문에 환인현 북전자향(北甸子鄉) 동쪽 평지에 위치한 나합성(蝸蛤城)을 오녀산성과 짝을 이루는 졸본 시기 고구려 평지 도성으로 보기도 한다.

3 국내성(國內城)으로의 천도